

유지 혈액 투석환자에서 진균에 의한 인조 혈관 폐쇄 1예

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교실, 내과학교실*, 병리학교실*

박제훈 · 한상엽* · 김의석* · 김한성*

인조 혈관 폐쇄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조 혈관 협착과 이에 따르는 혈전이 가장 흔하며, 이외에 세균에 의한 감염증이 있다. 그러나 진균에 의한 인조 혈관 폐쇄는 대동맥 수술 후에 보고된 바 있지만, 혈액 투석 환자에서는 드물다. 저자들은 당뇨로 인한 만성 신부전으로 유지 혈액 투석중인 환자에서 진균에 의한 인조 혈관 폐쇄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65세 여자가 30년간 당뇨치료를 받던 중 만성 신부전이 동반되어 7개월 전부터 우측 상지의 인조혈관을 통해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다. 환자는 7개월간 3회에 걸쳐 인조혈관 중앙부위에서 발적과 분비물이 동반되었다. 균 배양검사서 coagulase 음성 staphylococcus와 enterbacter cloacae 균이 동정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, 당시 진균은 배양되지 않았다. 항생제 치료에도 인조 혈관 주위에 유사한 소견이 지속되던 중 인조 혈관 폐쇄가 발생하여 응급 혈전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며, 혈전 내에 진균 덩어리가 관찰되어 항 진균제를 투여 받았다. 그러나 2주후 다시 인조혈관 폐쇄가 발생하여 인조혈관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며, 제거된 인조혈관 내에서는 Aspergillus로 의심되는 균주가 발견되었다. 인조혈관 제거 후 수술부위는 더 이상의 발적과 분비물은 관찰되지 않았다.

이상에서 인조 혈관에 반복적인 염증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균 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